

혁신기업 돋보기

성과보상·복지재단 통해 직원과의 '공정분배' 실천

태일씨엔티 김 경 수 대표

공사현장 수익 50% 현장직원들에 배분
삼성전자 평택 1~5기 건설 등 참여
고난도 기술 '답다운 공법' 통해 차별화



김경수 태일씨엔티 대표.

콘크리트 및 철근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태일씨엔티의 한 현장소장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약 7000만원을 받았다. 공사현장에서 남긴 수익의 50%를 노련한 임직원들에게 돌려주는 회사의 성과보상시스템에 의해서다.

6일 메인비즈니스에 따르면 태일씨엔티는 중소기업으로서 드물게 '사내복지재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회사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자 오너인 김경수 대표와 비슷한 지분율이다.

사내복지재단을 통해 장기근속자, 각종 경조사, 사내 모임 등을 후하게 챙긴다. 사내에서 만나 결혼한 두 커플에게는 3000만원씩의 결혼장려금을 줬다.

"복지를 늘리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 (챙기면서) 천천히 가려고 한다. 회사는 직원이 전부다. 과거 더하기 현재는 미래다. 파이를 키워서 미래엔 함께 했던 직원들과 같이 잘 살아가게 목표다."

김 대표는 2013년에 전문건설회사를 인수, 지금의 태일씨엔티로 사명을 바꿨다. 당시 그의 나이 51세였다.

"90년 당시 설계사무실에서 건축 일을 시작해 93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건설회사에 몸담았다. 사원에서 전무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임원을 하면서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성과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었다. 고민하던 끝에 회사를 나와 이듬해 아예 다른 회사를 인수, 창업했다."

월급쟁이 시절 씹숯했던 기억 때문에 김 대표는

늘 '공정한 분배'에 관심이 많다. 자신이 쓴 책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합니다'에서도 공정 분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회사 경영도 그렇게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이끄는 태일씨엔티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1기부터 5기까지 건설 과정에 참여했다.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1기, 엔씨소프트 글로벌 RDI센터, 판교 알파돔 등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반도체 공장, 변전소, 대형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및 복합개발 등 고품질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태일씨엔티는 고난도 시공기술인 '답다운(To p-down) 공법'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건설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방형 혁신도 추구하고 있다. 그는 "2017년에 투자한 로제타텍(로제 AI코리아)이 대표적이다. IT 재난안전 시스템 전문기업인데 현재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창립 10주년이 되기도 한 2022년에는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듬해엔 8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가설기자재시장 추가 진출 "가치있는 제품 공급할 것"

㈜선영 김 철 환 회장

진출 이후 KCs 안전 인증서 확보
청주·천안서 1·2공장 가동 중
OEM으로 각종 대기업에 납품



김철환 (㈜선영 회장)이 경기 의왕에 있는 본사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축자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주)선영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설기자재 시장에 새로 진출해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시스템 비계, 안전발판, 방음벽(RPP), 방음판넬 등이 대표적인 생산 제품이다.

"가설기자재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고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과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이 크다. 시장에선 10여개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관련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KCs 안전 인증서를 확보하는 등 제품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6일 경기 의왕에 있는 선영 본사에서 만난 김철환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선영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시스템 비계는 건설 현장에서 일본어로 '아시바'라고도 불리는 기존 강관 비계(조립식 비계)와 비교해 계단과 연결부가 규격화, 일체화되어 작업자의 추락을 막고 낙하물 방지 등에 효과적이다.

신사업인 시스템 비계를 비롯한 가설기자재는 충북 청주공장에서 생산한다.

현재 데코·인테리어, 벽지 관련 제품도 함께 생산하는 청주공장은 선영이 2003년 당시 LG 화학의 HPL(High Pressure Laminate) 사업을 인수한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던 공장을 중소기업이 사들인 이례적인 경우다. 선영은 현재 충남 천안에도 장판 등을 생산하는 1·2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제조하는 내·외장 및 인테리어

마감재는 OEM으로 현대L&C, LX하우시스, KCC에 납품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L&C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선영은 건축자재와 관련해 KS, ISO 9001 인증을 비롯해 특허 5건, 상표권 2건 그리고 다수의 디자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메인비즈(경영혁신)·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도 받으며 혁신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 회장은 1979년 당시 선영제판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사명을 선영화학으로 법인 전환(1985년)한 후 다시 지금의 선영이 됐다. 회사는 지난해 403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처음에 발을 들여놓은 분야는 인쇄업이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장의 한계를 느껴 인테리어 제품 등 건자재 분야로 탈바꿈했다. 45년 넘게 사업하면서 터득한 것은 남들이 어려울 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잘될 때 하면 안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넓히고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가설기자재 및 인테리어·익스테리어 마감재 생산 전문기업으로서 가치 있는 제품을 공급해 나갈 것이다."

/의왕(경기)=김승호 기자

중기부-중진공, '해외멘토단 프로그램' 운영 벤처협, 우수 벤처기업 발굴·지원 나서

美 관세대응 절차 등 수출 적극 지원
中企 GBC 현지 네트워크 활용 도와
웨비나·Zoom 등 통해 강의·상담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8일부터 '해외멘토단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현지 전문가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미국 관세대응 절차, 해외 진출, 수출국 다변화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외멘토단 프로그램'은 세계 주요 무역거점에 설치·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현지네트워크를 국내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멘토단은 21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 전문가(관세사, 변호사, 회계사 등), 대학교수, 한인단체, 기관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 운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채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해외멘토단')를 통해 웨비나로 진행한다. 기



/중소벤처기업부

업이 공급해 하는 내용을 강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각 웨비나 시작 이를 전까지 사전 질의와 후속 상담 신청을 받고, 종료 후에는 줌(Zoom)을 통해 일대일 상담도 제공한다.

'해외멘토단 프로그램'의 강의 주제는 크게 ▲미국 관세대응 등 해외 규제·정책 ▲바이어 조사 전략 ▲해외진출 ▲국가별 전략품목 등 4대 분야로 구

성했다.

첫 강연 주제는 ▲Hitrons Solution INC 정승화 대표의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방안' ▲콜라보그라운드(뉴욕 GBC 입주기업) 김치영 대표의 '오프라인 네트워크 기반 K-뷰티 진출 전략'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겸 유정학 관세사(미국 관세사)의 '미국 관세 대응방안, 수출통관 절차' ▲안준욱 대표(로폴리)의 'K-Tech 중소기업 미국 시장 진출 및 VC 경험사례'이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현지 시장 정보 부족으로, 특히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관세 정보, 대체시장 발굴 요구가 높다"면서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실시간으로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멘토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멘토단 프로그램'은 올해 총 21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에만 미국 뉴욕 GBC(8일), 미국 LA GBC(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GBC(22일), 중국 선전 GBC(29일)에서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2025 벤처에이스' 사업 참가사 모집

벤처기업협회가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선정하는 '2025 벤처에이스(VentureAce)'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6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2025 벤처에이스'는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선정해 대내·외에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우수벤처 선정사업'으로 운영해 온 이 사업은 9년간 총 858개의 기업을 우수벤처로 선정했다. 올해

는 '벤처에이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명칭과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6~7개 부문, 100개사 내외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선정 규모도 10개 내외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선정기업의 '대표성과 영예성'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협회의 언론 및 뉴미디어 채널, 금융·글로벌 진출·인재채용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벤처확인서를 보유한 비상장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에몬스, 핵심 키워드 '프리미엄 웰니스' 제시

'2025 F/W 디자인 트렌드 발표회'

에몬스가 '2025 F/W 디자인 트렌드 발표회'를 열고 '프리미엄 웰니스(Premium Wellness)'를 올해 하반기 가구업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에몬스는 최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본사 전시장에서 진행한 발표회에서 60여종의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에몬스는 '휴식'이라는 공간의 본질적 역할에 집중하고 자연 친화적 소재, 건강한 휴식,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가구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김승호 기자